

# 문과 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11월



## 문과 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정한울\_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11. 7

본 보고서는 11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주최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에서 필자가 발표한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동향” 중 새로 추가한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임

11월 6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7개항 공동합의가 발표되었다. 본격적인 후보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단일화 선언 이전까지의 단일화 관련 여론변화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1장에서는 그 동안 경험적 자료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과 안 확장성의 격차가 나타나는 유권자 유형에 대한 분석을, 2장에서는 가설로만 제기되었던 단일후보 선호에서의 새누리당 역선택 경향을 “잠재적 전략적투표층”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한다. [보론]에서는 10월 27일 조사까지의 후보단일화 관련 여론변화를 정리한 <EAI여론브리핑> 제124호 중 후보단일화 부분과 <EAI오피니언 리뷰>의 표의 이동 경로를 참고 자료로 첨부한다.

### 1.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시 확장성 격차 요인

#### 1) 확장성 및 이탈율 비교 : 안 단일화 시 이탈율 적어

안철수로 단일화 시, 박 대 문 대결에서 문 지지자의 86.6%→ 안철수 지지  
문재인으로 단일화 시, 박 대 안 대결에서 안 지지자의 79.5%→ 문재인 지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시 1:1 가상대결(가상대결1)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시 1:1 가상대결(가상대결2)시 선호를 교차(3\*3)해보면 총 9개의 응답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박근혜 후보 지지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의 대결 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350명의 응답자 중 81.7%가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를 그대로 지지가 유지(①)되고 19.3%는 안철수 후보지지(② 15.7%)나 기타(③ 2.6%)로 지지가 이탈한다. 반대 방향으로 박근혜 후보대 안철수 후보의 가상대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336명의 응답자 중 85.1%가 문재인 후보와의 1:1 대결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로 유지(①)되고 14.9%만 문재인 후보 지지(④ 11.3%)나 기타(⑦ 3.6%)로 이탈한다.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보다 문재인후보와의 대결이 유리함을 수 있다.

야권후보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대 문재인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381명 기준으로 보면 이중 박근혜 대 안철수 대결시 86.6%가 안철수 후보 지지(⑤)로 이어지고 10.0%는 박근혜 후보 지지(④)로, 기타로 3.4%(⑥) 이탈한다. 반대로 박근혜 대 안철수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415명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에서는 이들 중 79.5%만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지고(④), 20.5%가 박근혜 지지(②13.3%)나 기타응답(⑧ 7.2%)로 이탈한다.

최근 전체지지도나 단일후보 선호도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가 문제인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문제인 후보 지지자를 흡수하는 비율이 반대로 문제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했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자를 흡수하는 비율보다 높다. 이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문제인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문제인 후보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박 대 문 가상대결과 박 대 안 가상대결 교차 유형

10월 조사			가상대결2			Total
			(1) 박근혜	(2) 안철수	(3)기타	
가상대결1	(1) 박근혜	Count	① 286	② 55	③ 9	350
		대결1 → 대결2	81.7%	15.7%	2.6%	100.0%
		대결2 → 대결1	85.1%	13.3%	18.0%	43.7%
	(2) 문재인	Count	④ 38	⑤ 330	⑥ 13	381
		대결1 → 대결2	10.0%	86.6%	3.4%	100.0%
		대결2 → 대결1	11.3%	79.5%	26.0%	47.6%
	(3) 기타	Count	⑦ 12	⑧ 30	⑨ 28	70
		대결1 → 대결2	17.1%	42.9%	40.0%	100.0%
		대결2 → 대결1	3.6%	7.2%	56.0%	8.7%
Total		Count	336	415	50	801
		가상대결1	41.9%	51.8%	6.2%	100.0%
		가상대결2	100.0%	100.0%	100.0%	100.0%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2) 안철수의 확장효과 : 친안비문 응답유형 > 친문비안 유형

안철수 단일화시 대 박근혜 경쟁에서 4.3%p 이득

-안지지 비문제인 유형 10.6%, 문지지 비안철수 유형 6.3%

위의 표를 좀더 단순화하여 1:1 가상대결 각각에서 안철수 후보, 문제인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로 양분하여 교차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태도유형을 얻을 수 있다([표5]). 박근혜 대 안철수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와 기타 지지자를 합해 비 안철수 지지로 묶고, 박근혜 대 문제인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와 기타 지지자를 합해 비문제인 지지성향으로 분류하여 교차한다. ①은 비문제인/비안철수로서 전체 유권자의 41.8% 수준을 차지한다. 반대로 ④는 박대 안 대결에서는 안을, 박대 문 대결에서는 문을 지지하는 동시지지유형이다. 즉 후보가 누가되던 야권후보를 찍을 비율이 41.2%라고 볼 수 있다.

안철수지지/비문제인 지지유형(②)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시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지만, 문제인 후보 지지시에는 박근혜 후보나 기타지지로 돌아서는 이탈층으로서 전체 유권자의 10.6%





가 된다. 반대로 문재인지지/비안철수 지지유형(③)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시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었을 때 이탈하는 유형으로서 6.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시에는 ② 안지지비문유형과 ④ 안/문동시지지유형의 합인 51.8%의 지지가 가능한 반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시에는 ③ 문지지비안 유형과 안문 동시지지층의 47.5%의 지지가 가능한 셈이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시 4.3%포인트의 지지율 확장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 1:1 대결시 안철수/문재인 후보 지지여부에 따른 지지성향 분류

10 월 조사		가상대결 2 : 박근혜 대 안철수	
		비안철수(박근혜+기타)	안철수 지지
가상대결1 박근혜 대 문재인	비문재인(박근혜+기타)	① 비문재인/비안철수 41.8%	② 안지지/비문재인 10.6%
	문재인 지지	③ 문지지/비안철수 6.3%	④ 안/문 동시지지 41.2%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3) 격차요인 : 계층별 찬안비문유형

문지지/비안 유형 > 안지지/비문 유형: 민주당 지지층-40대:

문지지/비안 유형 < 안지지/비문 유형: 무당파/중도층, 2030세대, 호남지역

[표6]에서 지지정당, 이념성향, 세대, 지역별로 단일후보 지지유형을 분류해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40대에서만 문재인지지-비안철수 유형이 높았을 뿐 나머지 전 계층에서 안철수지지-비문재인 유형이 높았다. 특히 지지율 확장에서 중요한 무당파 층에서는 문지지-비안철수 유형이 5.4%에 불과했지만 안지지-비문재인 유형은 23.9%나 되어 무당파층에서 안철수 우위와 문재인 확장성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이념적 중도층에서도 문지지-비안철수 유형은 7.2%였지만 안지지-비문재인 유형은 두 배가 넘는 14.7%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만 두 유형간 차이가 가장 적었고 호남에서 안지지/비문 유형이 18.5%로 많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현재의 단일후보 지지선호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단일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도/무당파층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중도/당파층 및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안철수지지/비문재인 성향의 비토여론을 우호적 여론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단일화에서의 승리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표3] 지지정당, 이념성향, 세대, 지역별 단일후보 지지유형 분류

10 월 조사		단일후보 지지유형				
		비문 비안	문지지 비안철수	안지지 비문재인	안/문 동시지지	계
지지정당 별	새누리당 지지	86.6%	2.7%	<b>8.7%</b>	2.1%	100.0%
	민주당 지지	4.7%	<b>9.9%</b>	6.2%	79.2%	100.0%
	무당파	30.4%	5.4%	<b>23.9%</b>	40.2%	100.0%
이념성향	진보	20.2%	5.0%	8.3%	66.5%	100.0%
	중도	41.5%	7.2%	<b>14.7%</b>	36.6%	100.0%
	보수	56.5%	5.6%	8.6%	29.3%	100.0%
세대	20대	23.3%	4.8%	<b>15.1%</b>	56.8%	100.0%
	30대	21.5%	3.1%	<b>16.0%</b>	59.5%	100.0%
	40대	36.4%	<b>11.9%</b>	5.7%	46.0%	100.0%
	50대	57.9%	5.3%	7.9%	28.9%	100.0%
	60대	69.5%	5.5%	9.8%	15.2%	100.0%
지역	서울	40.1%	4.2%	9.6%	46.1%	100.0%
	인천/경기	40.2%	7.9%	10.0%	41.9%	100.0%
	대전/충청	37.0%	9.9%	11.1%	42.0%	100.0%
	광주/전라	11.1%	7.4%	<b>18.5%</b>	63.0%	100.0%
	대구/경북	72.0%	4.9%	11.0%	12.2%	100.0%
	부산/울산/경남	51.6%	4.7%	7.0%	36.7%	100.0%
	강원/제주	35.3%	5.9%	11.8%	47.1%	100.0%

## 2. 새누리당 지지층 전략적 투표 경향이 변화

### 1) 새누리당의 잠재적 전략적 투표층 정의

후보 단일화나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의 경우 단일후보와 경쟁해야 하는 새누리당 지지자 혹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그 근거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전략적 투표층(역선택)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새누리당의 지지층에서의 전략적 투표는 야당 후보 중 자기당 후보에게 위협이 되는(문과 안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호하는 단일후보로 지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정의하자(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 즉 당선가능성이 낮아도 인물에 대한 호감이나 정당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지하는 경우도 있겠다. 엄밀히 정의하면 이는 전략적 투표로 부르기 힘들다. 여





기서는 엄밀한 전략적 투표의 규모를 추정하기 보다는 그 대체적인 분포와 변화추이를 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느슨한 개념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실제 전략적투표층이라고는 포괄적으로 ‘잠재적 전략투표층’으로 명명한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9월, 10월 조사에서는 문과 안 두 후보 중 당선가능성이 누가 더 높다고 보는 지 물어보고, 단일후보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 지 평가했다.

## 2) 9월 역선택 경향: 안철수 경쟁력 경계한 문재인 선택 비율 커

우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9월 조사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안철수 후보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120명), 문재인 후보가 높다는 응답이 29.2%(96명)로 안철수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선 잠재적 전략투표층은 18.3%정도 였고, 단일후보로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0.0%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본 새누리당 지지층(96명)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호한다는 비전략적 선택이 81.3%였고,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는 안철수 후보를 선호한다고 답한 잠재적 전략투표층은 6.3%에 불과했다.

본 보고서의 느슨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전체가 마치 전략적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과장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월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경계감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로 안철수 후보에 대신 문재인 후보를 역선택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선가능성이 비슷하다고 중립적으로 본 새누리당 지지층(67명)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56.7%였다는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전략적 역선택 말고 문재인 후보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안철수 후보 선호는 16.4%에 그쳤다.

[표4] 9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야권후보 당선가능성 평가와 단일후보 선호

새누리당 지지층 9월 조사		9월 조사 단일후보 선호			
		안철수	문재인	기타	계
당선가능성 평가	안철수(120명)	60.0	<b>18.3</b>	21.7	100
	문재인(96명)	<b>6.3</b>	81.3	12.5	100
	비슷하다(67명)	16.4	56.7	26.9	100
	기타(39명)	12.8	10.3	76.9	100
Total	322명	29.2	44.1	26.7	100

\* 굵은 글씨가 잠재적 전략적 투표층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3) 10월 조사 : 문재인 역선택과 안철수 역선택이 상쇄

그러나 10월 조사에서는 우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눈에 띈다. 각각 29.9%(100명), 30.2%(101명)로 대등해졌다. 새누리당 내에서 전략적 투표규모의 변화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층에서는 17.0%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잠재적 역선택 층으로 나타나 9월과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자 층의 9월 조사에서는 81.3%가 그대로 문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68.3%만이 문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대신 지지한다고 밝힌 잠재적 투표의 사층은 13.9%로 전 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두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비슷하다고 본 92명 중에서도 이번 달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선호한 응답이 30.4%, 문재인 후보는 다소 떨어진 56.7%로 나타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의 문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표5] 10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야권후보 당선가능성 평가와 단일후보 선호

새누리당 지지층 10월 조사		단일후보 선호			
		안철수	문재인	기타	계
당선가능성 평가	안철수(100명)	67.0	<b>17.0</b>	16.0	100
	문재인(101명)	<b>13.9</b>	68.3	17.8	100
	비슷하다(92명)	30.4	45.7	23.9	100
	기타(414명)	17.1	2.4	80.5	100
Total	335명	34.7	38.6	26.6	100

\* 굵은 글씨가 잠재적 전략적 투표층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보론] 1. 후보단일화 정당성 및 후보 선호

### 1) 전체 및 지지자별 여론

단일화 찬성: 9월 44.8% → 10월 48.7%

문 지지층 76.1%→83.9%↑, 안 지지층 54.7%→62.6%↑, 미결정층 40.1% → 34.8%↓

한달 전에 비해 10월 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48.7%로 44.8%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오차범위 내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해야 한다” 는 여론은 48.7%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해서는 안된다” 는 여론 27.9%보다 높았다. 그러나 “잘모르겠다” 는 응답도 23.4%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층이 적지 않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야권성향의 지지층이 외의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자 대결 기준으로 문재인 지지층이 가장 적극적이고, 76.1%가 찬성했던 9월 조사에 비해 10월 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에서 단일화 찬성여론이 83.9%로 늘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9월 조사에서 54.7%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10월 조사에서는 62.6%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 비해 단일화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응답이 40%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다자대결구도에서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미결정층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지지가 34.8% 수준까지로 줄어들어 단일화 하더라도 미결정층에서의 확장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 단일후보 선호 변화 : 안철수 34.4%→38.4%, 문재인 41.8%→ 43.0%

단일후보로는 전체응답자의 38.4%가 안철수 원장을, 43.0%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9월 조사에서 34.4%가 안철수 원장을, 41.8%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슷한 추세이다. 기타/응답을 유보했던 층이 23.8%에서 18.6%대로 낮아지면서 단일후보로 지지율이 두 후보 모두 조금씩 상승한 결과다.

### 3) 새누리당 지지층 제외 시 : 문-안 박빙, 문 상승세

단일화 찬성 (9월) 60.0% → (10월) 69.2%

단일후보 선호 안 대 문 (9월) 38.0% : 40.3% → (10월) 40.9% 대 46.2%

새누리당 지지층의 여론은 야권 후보 단일화 시 교란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분석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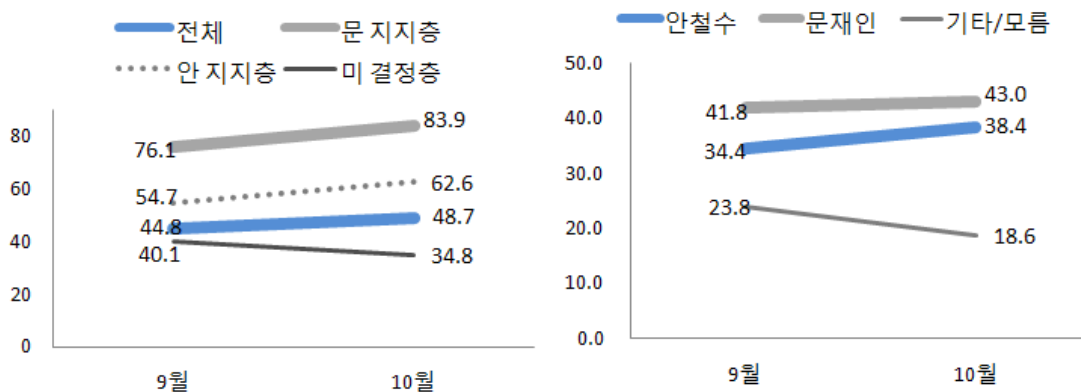




면 단일화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즉 9월 조사에서 비여당지지층에서 9월의 경우 60.0%였으나 10월 조사에서는 69.2%로 강화되고 있다. 단일후보 선호에서는 9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 38.0% 대 문재인 후보 40.3%로 팽팽했다. 10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 40.9% 대 문재인 후보 46.2%로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10월 조사결과 역시 오차범위 내라는 점에서 여전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 선호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1] 안철수 원장의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찬성과 선호하는 단일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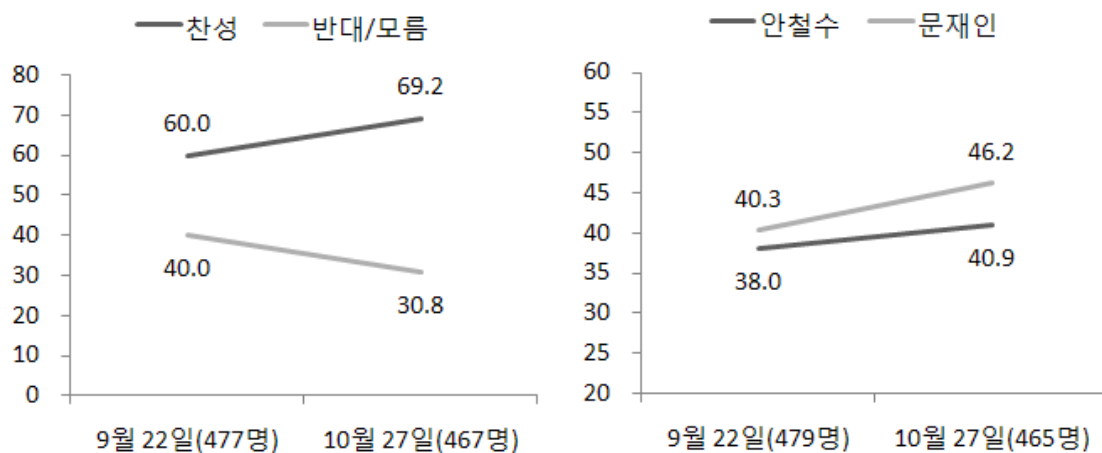
(1) 지지후보별 후보 단일화 찬성 여론(%)      (2) 선호하는 단일후보 : 전체 800명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그림2] 새누리당 지지층 제외 시 단일화 및 단일후보 선호(%)

(1) 새누리당 지지층 제외 시 단일화 여론      (2) 새누리당 지지층 제외시 선호 후보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4) 후보단일화 선호의 균열 강화 : 단일화 갈등의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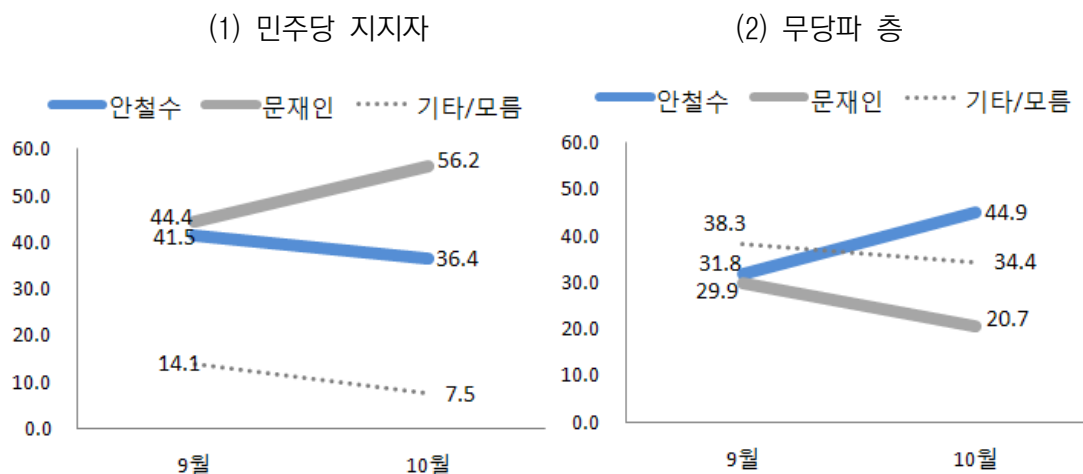
민주당 지지층 (9월) 안 41.5% = 문 44.4% 팽팽 → (10월) 안 36.4% < 문 56.2%

무당파 (9월) 안 31.8% = 문 29.9% → (10월) 안 44.9% > 문 20.7%

단일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실질적 지지층이 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간의 지지후보가 엇갈리는 것은 이후 단일화 논의의 장애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 모두에서 단일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1.5%였고, 문재인 후보를 꼽은 응답이 44.4%로 거의 대등했다. 무당파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1.8%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29.9%로 거의 대등했다.

그러나 이번 10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후보로서 안철수 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6.4% 대 56.2%로 문재인 후보 지지결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무당파에서는 단일후보로서 안철수 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44.9%, 문재인 20.7%에 그쳤다. 이처럼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와 무당파 층의 선호 사이의 간격은 지금 당장 어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을 막고,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지지후보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3]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단일후보 선호(%)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 [보론] 2. 단일후보 선정의 딜레마 : 확장성은 안철수, 경쟁력은 문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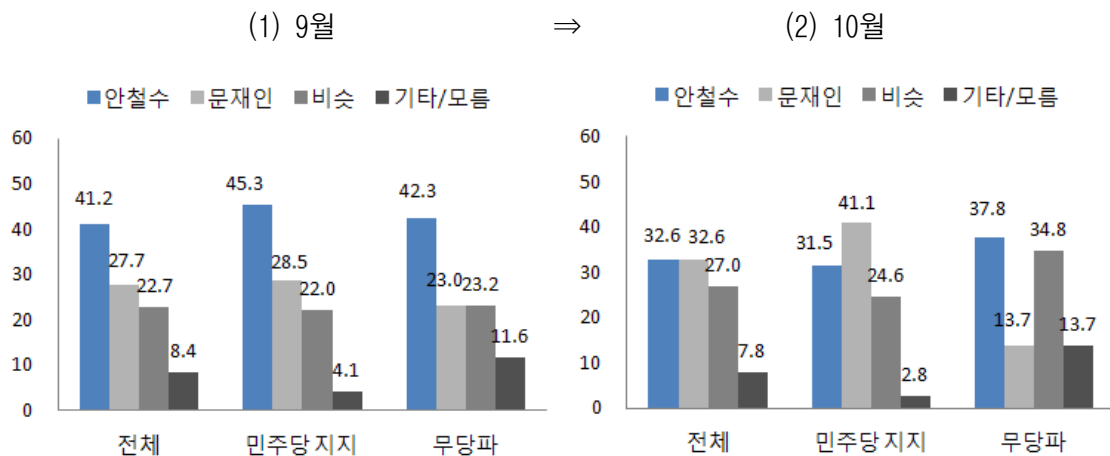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 박근혜 경쟁력 즉 확장성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지지/비문재인 성향유권자층이 문재인지지/비안철수 성향 유권자 층에 비해 상대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후보의 경쟁력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교우위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야권단일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 1) 당선가능성 평가

당선가능성 : 안철수 당선가능성 우위 → 민주당 지지자 文 우위, 무당파 安 우위로 균열  
(9월) 안 41.2%, 문 27.7% → (10월) 안 32.6% 대 문 32.6%

9월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경쟁력은 안철수 원장이 높고,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대칭구조가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던 당선 가능성에서의 안후보의 비교우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림7] 당선 가능성 평가(%)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9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1.2%로 높은 반면, 문재인 후보가 더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27.7%, 비슷하다는 응답이 22.7%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45.3%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가 더 높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무당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10월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두 후보 중 안철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응답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각각 32.6%로 동률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1.1%, 안철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31.5%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본 것에 기인한다. 반면 무당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37.8%로 전월에 비해 4.5%p 낮아졌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3.7%로 전월에 비해 9.3%p나 낮아졌다. 대신 비슷하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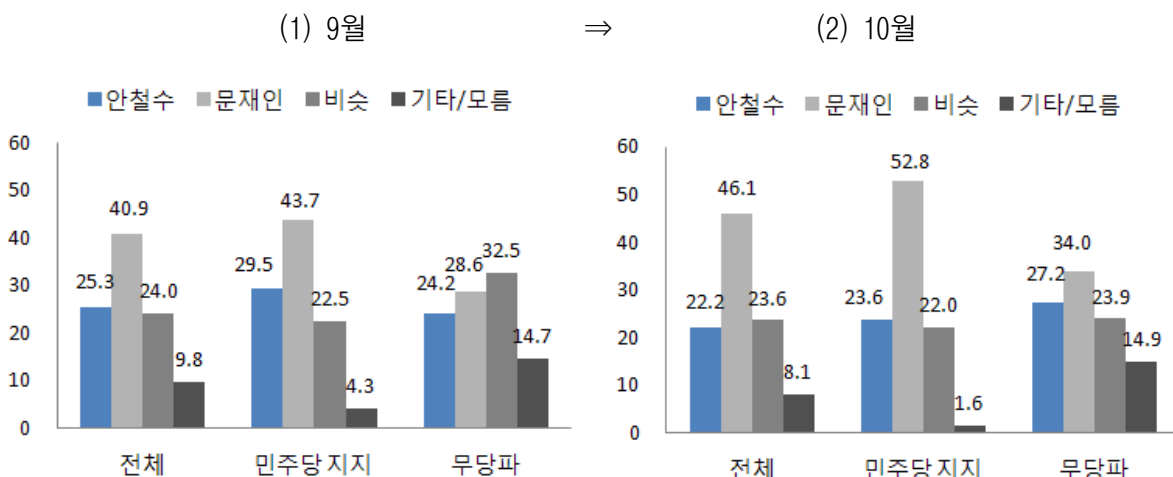
## 2) 국정운영능력 :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 평가 상승 주도

(9월) 안 25.3% 대 문 40.9% → (10월) 안 22.2% 대 문 46.1%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비교우위가 전월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낫다는 응답은 22.2%, 문재인 후보가 낫다는 응답이 46.1%였다. 안철수 후보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월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9월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지지층의 29.5%가 안철수 후보가, 43.7%는 문재인 후보가 국정운영능력이 나을 것이라고 답했고, 22.5%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10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23.6%만이 안철수 후보 우세를, 52.8%가 문재인 후보 우세를 보여주었고, 무당파에서도 9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24.2%, 문재인 28.6%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0월조사에서는 안철수 27.2%, 문재인 34.0%로 문재인 후보의 상승폭이 컸다.

[그림8] 국정운영능력 평가(%)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도하고, 무당파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양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가능성





과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문재인 후보의 강세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기대를 걸었던 층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결집한 반면, 무당파 층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보론] 3. 문재인 상승 요인 : 표의 이동 (8-10월 사이)

민주당 컨벤션 효과(경선후보 지지층 흡수)보다 안철수 지지하락 반사이익

안 지지이탈 31.2% (128명/410명), 그 중 77명 (60.2%)이 문 지지로 이동  
문 지지이탈 14.0% (26명/186명), 그 중 18명(69.2%)이 안철수 지지로 이동  
박 지지이탈 15.9% (85명/533명), 그 중 29명(34.1%) 문, 그 중 24명(28.2%)이 안 지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패널조사 1차(8월), 2차(10월)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17명의 다자구도 선호 이동을 보면 1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40.5%, 안철수 후보 31.1%, 문재인 후보 14.1%였지만 이들은 2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38.3%로 2.2%포인트 하락했고, 안철수 후보는 3.5%포인트 하락한 27.6%, 문재인 후보는 9.2%포인트 상승한 23.3%로 나타났다.

우선, 박근혜 후보의 지지 유지율은 84.1%, 문재인 후보 지지 유지율은 86.1%, 안철수 후보의 지지 유지율은 68.8%로 나타나 이탈율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탈자 128명 중 77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문재인 후보 10월 지지 응답자 320명 중 신규 유입된 지지자가 160명인데 이 중 77명이나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유입되었다.

둘째, 안철수 후보 이탈자에게 이탈요인을 물어본 결과 국정능력이 부족해보여서라는 응답이 33.9%, 당선가능성이 약해보여서 17.3% 등으로 역시 국정경험 및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 지지로 유입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신규지지자중 손학규 후보,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 기존 민주당 경선후보 지지자의 지지층에서 유입된 비율은 41~45% 수준으로 나머지는 박근혜 후보지지와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탈하였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 상승이 컨벤션 효과 었다는 분석은 타당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셋째, 대부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의 경우 8월 당시 지지층이 상당히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두 달 사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 유입된 신규 지지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고정지지층이 되는가, 지속적인 부동층으로 남는가가 이후 대선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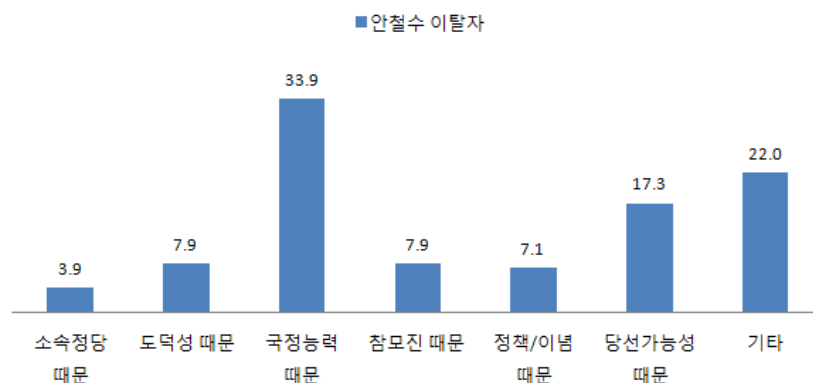
[표1] 대선패널조사 1차(8월), 2차(10월) 조사간 표심 이동

8월		10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강지원	박찬중	미결정	계
문재인	횡(%)	1.1	<b>86.0</b>	9.7			0.5		2.7	100
	전체(%)	0.2	12.1	1.4			0.1		0.4	14.1
	빈도수	(2)	(160)	(18)	(0)	(1)	(0)	(5)	(186)	
박근혜	횡(%)	<b>84.1</b>	5.4	4.5			0.2		5.8	100
	전체(%)	34.0	2.2	1.8			0.1		2.4	40.5
	빈도수	(448)	(29)	(24)	(0)	(1)	(0)	(31)	(533)	
안철수	횡(%)	5.4	18.8	<b>68.8</b>			0.2		6.8	100
	전체(%)	1.7	5.8	21.4			0.1		2.1	31.1
	빈도수	(22)	(77)	(282)	(0)	(1)	(0)	(28)	(410)	
김두관	횡(%)	8.3	41.7	29.2	8.3				12.5	100
	전체(%)	0.2	0.8	0.5	0.2				0.2	1.8
	빈도수	(2)	(10)	(7)	(2)	(0)	(0)	(3)	(24)	
손학규	횡(%)	21.6	45.9	18.9					13.5	100
	전체(%)	0.6	1.3	0.5					0.4	2.8
	빈도수	(8)	(17)	(7)	(0)	(0)	(0)	(5)	(37)	
정세균	횡(%)	25.0	25.0						50.0	100
	전체(%)	0.1	0.1						0.2	0.3
	빈도수	(1)	(1)	(0)	(0)	(0)	(0)	(2)	(4)	
미결정	횡(%)	17.9	21.1	20.3			2.4	0.8	37.4	100
	전체(%)	1.7	2.0	1.9			0.2	0.1	3.5	9.3
	빈도수	(22)	(26)	(25)	(0)	(3)	(1)	(46)	(123)	
계	횡(%)	38.3	24.3	27.6	0.2		0.5	0.1	9.1	100.0
	빈도수	(505)	(320)	(363)	(2)	(6)	(1)	(120)	(1317)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패널조사 1차(8월), 2차(10월) 조사

[그림3] 지지 이탈자의 이탈요인 : 대선1차(8월)-대선2차(10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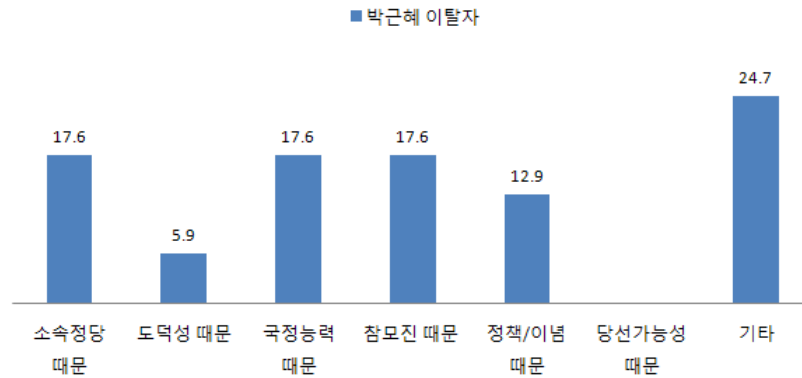
(1) 안철수 이탈자 1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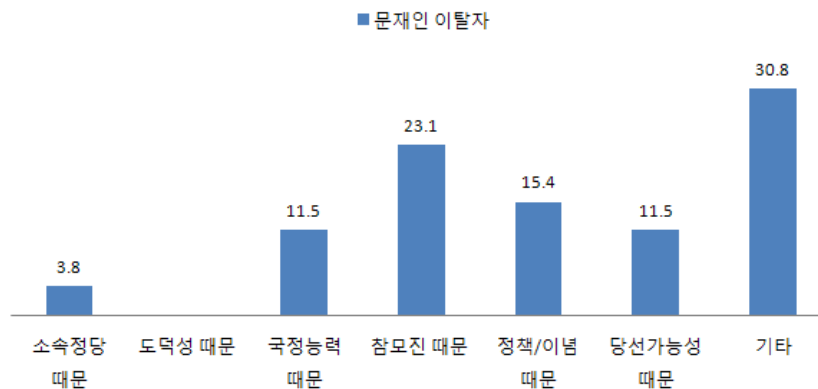




## (2) 박근혜 이탈자 85명



## (3) 문재인 이탈자 26명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패널조사 1차(8월), 2차(10월) 조사  
출처: EAI 오피니언 메모 제6호(2012.10)

## [보론] 4. 단일화의 숙제 : 퇴행적 선거공학인가? 정치쇄신의 계기인가?

11월 5일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회동 제안으로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까지 단일화는 야권승리의 필요조건은 될 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단일화를 득표전략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두 후보의 공언과는 달리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쇄신, 정치개혁의 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정치퇴행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선 승부를 떠나 어차피 정치일정에 오른 단일화가 정치퇴행보다 정치쇄신과 개혁의 계기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진영은 다음과 같은 단일화가 갖고 있는 정치퇴행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선거 결과에 급급할 경우 선거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선거를 승리하더라도 정치쇄신, 정치개혁이라는 명제를 실현하는 길과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쇄신, 정치개혁의 계기로서의 후보단일화가 아닌 퇴행적 선





거공학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한다.

## 1)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정당정치의 약화

무엇보다 단일화 전략이 정당의 정체성과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측면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로서 권력의 집중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권력구조이다. 그러나 정당 구조는 양당제 보다는 새누리당과 분산된 야당이 경쟁하는 구도로서 야권은 매 선거마다 야권의 연합에 의존한 정책을 펼쳐왔다. 후보단일화는 선거전략 상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이해되지만, 정당정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정치를 오히려 약화시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 정치쇄신을 위한 단일화 전략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이라는 고유의 정당기능을 필연적으로 주변화시킨다. 단일화 전략이 일상화(홍행에 주목)되면서 당내 후보경선제도는 안정화,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직을 준비하는 정치엘리트들이 제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치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후보도 단일화 과정에서의 상대방과의 전략적 지분 협상과정에서 경쟁에조차 뛰어들기조차 어려워지고, 전혀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새로 경선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경선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외에도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지난한 정당개혁 작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왜 민주당이 불임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지 기간의 후보단일화 전략의 부작용은 아니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은 오랜기간 형성되어온 역사적 구성물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 당원들의 합의와 동의과정, 체계적인 추진전략 하에서 일관된 정치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 당의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이 단일화 전략의 수단 차원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통합이전인 민통당과의 통합, 연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당의 좌향좌 노선이 추진되기도 하고, 실제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 기존의 이념적 포지션과 다른 공동정책제안을 내부의 아무런 검토나 논의 없이 통과시키기도 한다. 단일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본말이 전도된 정체성 변경은 ‘정책정당’, ‘책임정당’의 길과는 멀어지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2) 현재의 단일화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

단일화 성공의 기준도 문제이다. 명분은 정치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승리를 위한 공학





이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그 동안 선거연합의 유지된 기간을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96년도 내각제를 매개로 추진된 DJP 연합은 2년간 지속된 후 공동정부를 유지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 내각제 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후보단일화는 선거 전날 파기되었다.

이 사례들은 이념과 가치, 정당의 역사적 뿌리에서 이질적인 결합이었다는 한계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하에서 집권후 선거 전 합의를 강제할 제도나 수단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단일화 패자의 경우 안정적인 연합정부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승리한 진영은 집권이후 권력기반의 안정화, 재집권 전략 차원에서의 지지기반 확장의 필요성 때문에 끝까지 권력분점을 유지하기 보다는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필연적으로 집권기간 중 집권세력의 내분, 분당으로 이어져 단일집권체제는 형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집권세력을 위축시키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 불신과 지지층 이탈을 가져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보면 단일정당 집권기였음에도 소수와 정권이 집권이 분당으로 귀결되었는데, 연합정부의 경우 원심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보단일화의 성공은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정부 구성이후 연정의 지속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되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

둘째,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안-문 후보단일화의 명분과 기준이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범위와 대상, 명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를 씻기에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범야권연대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의 연대로 한정되어야 하는 정당화 과정이 누락되어 왔다. 단일화의 범위, 대상은 결국 추구하는 목표와 명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통진당이나, 새로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현재의 단일화 논의에서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까지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떠한 기준, 어떠한 명분하에서 안-문 연합으로 한정되는지 의문이다. 그 기준과 명분이 불명확하다보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의 연대를 주장해왔는데 현재 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단지 득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 반세누리당의 연합을, 혹은 그 중 일부세력과의 선택적 연대를, 아예 배제하는 듯한 입장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단일화의 시간표는 아무런 공식적 논의와 결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mailto: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곤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 120호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이곤수 2012-09-07
- 121호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정한울 (2012. 9. 23)
- 122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이곤수·정원철 (2012. 10. 21)
- 123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2012. 10. 25)
- 124호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 후보등록 한달 전 대선여론" 정한울 (2012. 10. 28)

##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 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 31)
- 2012-09호. "2012 대선 불확실성 특성 분석 : 적대적 이분법 구도의 약화와 여당 전략 변화" 정한울 (2012. 9. 21)
- 2012-10호.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장승진. (2012. 10. 21)
- 2012-11호. "수도권 40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 기대와 실망의 공존" (FGD결과 분석) (2012. 10. 29)
- 2012-12호. "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2012. 10. 29)

##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